

# 리허설 끝났다…‘V11’ 불 밝혔다

KIA, 내일 개막 앞두고 야간 훈련…최형우·안치홍 등 참여

‘호랑이 군단’의 2017시즌에 불이 밝혀졌다. 지난 28일 챔피언스필드의 조명탑이 오랜만에 환한 빛을 쏘아냈다. 오는 31일 2017시즌 개막에 앞서 KIA 타이거즈의 야간 훈련이 진행될 것이다.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와 시범경기가 주간에 진행됐던 만큼 선수들은 조명탑 불빛 아래서 훈련을 하며 야간 경기를 위한 적응 시간을 보냈다. 야간 훈련은 시즌 개막에 대비한 마지막 리허설인 셈이다. 투수진이 러닝과 캐치볼 등을 하며 땀을 흘렸다. 불펜도 피칭 훈련을 하는 투수들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야수진은 라이브 배팅으로 야간 훈련을 시작했다. 부상으로 우려를 샀던 외야수 최형우와 내야수 안치홍도 정상적으로 방망이를 들었다. 최형우는 지난 22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범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입었다. 이 경기를 끝으로 시범경기 일정을 마무리했던 최형우는 야간 훈련을 하며 친정팀을 상대로한 시즌 개막전에 대비했다.

최형우는 “1군에서는 10번째 개막전이고, 프로에서는 16번째 시즌이다. 매번 개막은 설레다”며 밝은 표정으로 야간 훈련을 소화했다. 최형우는 외야로 나가 정상적으로 수비 훈련까지 소화했다. 지난 18일 SK 와이번스전을 끝으로 자취를 감췄던 안치홍도 모습을 드러냈다. 안치홍은 경기 도중 도루를 하다가 옆구리 염좌 부상을 당하면서 개막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하지만 이날 안치홍은 다른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며 군 제대 후 본격적인 시즌 출발에 이상이 없을 것을 알렸다. 공식적인 야간 훈련은 뜬공 수비로 마무리됐다. 방망이를 들고 땀을 흘리던 야수들이 글러브를 끼고 각자의 자리로 향했다. 김민호 수비 코치가 밤하늘로 띄운 공을 쫓아 선수들이 챔피언스필드 그라운드를 뛰어다녔다. 가장 눈길을 끈 이는 ‘예비역’ 유격수 김선빈이다.

뜬공 수비에 약점을 보였던 만큼 김선빈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눈길이 쏠렸지만 큰 실수 없이 김선빈의 리허설도 끝났다.

밝은 표정으로 야간 훈련을 소화한 김선빈은 “개막을 앞둔 마음이 예전과 다르다. 모든 게 새롭게 하고 올 시즌이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개막을 앞둔 설렘과 함께 시즌에 대한 긴장감을 엿볼 수 있었던 하루. 아쉬움 속에 다음을 기약한 선수들도 있었다.

개막 시리즈에 앞서 선수단 명단을 재조정하면서 기회를 얻은 멤버만이 야간 훈련에 나섰다. 라이브 배팅 도우미 역할을 맡은 고졸 2년 차 김현준, 루키 유승철과 좌완 정동현, 사이드암 박진태도 다음을 기약하며 챔피언스필드에서의 마지막 훈련을 소화했다. 한편 야간 훈련으로 시즌 분위기를 낸 KIA는 30일 오전 챔피언스필드에서 무사 안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 선수들은 오후 훈련을 소화한 뒤 2017 시즌 개막전이 열리는 대구로 떠날 예정이다.

/글·사진=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챔스필드에 ‘스포츠 펍’ 생겼어요

F&B 시설 새단장…관람 편의 고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의 F&B시설(식음료 매장)이 새 단장을 끝냈다. KIA는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초까지 9억원을 들여 챔피언스 필드 ‘F&B 시설 정비 사업’을 완료했다. 경기장 곳곳의 편의점과 가판대를 일관된 디자인으로 표준화한 KIA는 챔피언스 필드 주 색상인 빨강과 회색을 활용해 구장 시설과 일체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등 효율적인 음식 제공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가장 크게 달라진 곳은 3층 메인 콘코스(중앙 통로) 시설이다. 가판대와 관중이 섞여 발생하는 혼잡을 줄이기 위해 관중 동선을 고려, 간이 판매 부스의

위치를 조정했다.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8개 설치했다. 테이블엔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전원장치가 갖춰졌다. 생맥주 판매 시설인 ‘비어탑’도 개설했다. 가장 돋보이는 시설은 콘코스 양 끝(1·3루 끝)에 들어선 ‘챔피언스 펍(champions pub)’이다. 관중이 서서 맥주와 음료 등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바(bar)가 마련된 공간이며, TV 3대를 설치해 ‘스포츠 펍’ 분위기로 조성했다. 챔피언스 펍 주변은 역대 유니폼 전시 부스(1루측)와 역대 우승 엠블럼(3루측) 장식 벽으로 꾸며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KIA는 공개입찰을 통해 F&B 시설 운영자로 ‘신세계푸드’를 선정하고, 관객들의 메뉴 선택 폭을 넓혔다. 편의점은 ‘위드미’가 입점(5곳)했으며, 스무디킹, 올반델리, 데블스도어(치킨) 등도 새로 들어섰다. 피자는 ‘파파존스’ 매장이 운영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878만6248명…프로야구 최다관중 도전

KIA 78만1200명 목표

한국프로야구가 역대 최다관중에 도전한다. 목표는 878만6248명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오는 31일 2017 타이거뱅크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목표 관중을 발표했다.

10개 구단이 제시한 올 시즌 목표 관중은 878만6248명(경기당 평균 1만2203명)으로, 이는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을 넘겼던 지난해(833만9577명)보다 5.4% 증가한 수치다.

‘한 지붕 두 가족’인 두산과 LG는 나란히 홈 관중 120만명을 향해 땀을 흘린다. 지난해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 최초로 8년 연속 100만 관중을 돌파한 두산은 올해 9년 연속 100만을 노린다. 2년 연속 리그 최다 관중에도 도전한다.

LG는 두산에 이어 두 번째로 8년 연속 100만 관중 돌파를 준비한다.

2012년 136만8995명으로 KBO 리그 구단의 역대 한 시즌 최다 관중 기록을 보유한 롯데는 돌아온 이대호를 앞세워 2012년 이후 5년 만에 100만 관중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는 목표 관중을 지난해 대비 17.3% 높여, 10개 구단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SK가 9.8% 오른 95만명, NC가 9.3% 증가한 60만48명으로 뒤를 이었다. 2017 시범경기에서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예고한 ‘막내’ kt는 지난해 총 관중인 68만2444명보다 7% 증가한 73만0000명을 목표로 잡았다.

지난해 신축구장 효과를 톡톡히 본 삼성과 넥센은 각각 88만명과 80만명을 목표로 한다. KIA는 78만1200명, 한화는 64만5000명을 바라본다.

한편 KIA와 NC, 넥센, 삼성, kt가 목표로 한 관중수는 구단 역대 최다 수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스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시범경기 5회말 미네소타의 박병호(왼쪽)가 2루에 뛰어들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호 결승포…개막 로스터 진입 청신호

박병호(미네소타 트윈스)가 결승 솔로 아치를 그리며 개막 로스터(25명) 진입 가능성을 더 키웠다.

박병호는 29일 2017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서 탬파베이 레이스를 상대로 5호 홈런을 쏘아 올렸다.

7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한 박병호는 0-0으로 맞선 7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우완 오스틴 프루이트의 빠른 공을 받아쳐 우중월 솔로 홈런을 만들었다.

2회말 헛스윙 삼진을 당한 박병호는 5회말 볼넷을 얻어 걸어나갔다. 박병호의 시범경기 타율은 0.356에서 0.362(4타수 17안타)로 올랐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한 방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세인트루이스 마무리 오승환은 뉴욕 메츠와 경기에서 3-3으로 맞선 8회말 등판해 2이닝을 무피안타 무실점 2탈삼진으로 막았다. 8회말 첫 상대인 대타 윌버 플레스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오승환은 타 이 캘리를 3루수 뜬공으로 잡았다. 이어 J. C 로드리게스를 1루수 땅볼로 요리했다. 9회에도 오승환은 마이클 콘포르토를 1루

수 직선타로 잡아내고 패트릭 비온디를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마지막 타자 T. J. 리베라는 중견수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팀은 3-3 무승부를 이겼다.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김현수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전에 6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3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애틀랜타의 선발투수는 좌완 하이메 가르시아였다. 김현수가 좌완을 상대로 선발 출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김현수는 2회초 첫 타석에서 루킹 삼진, 3-0으로 앞선 3회초 2사 2루에서는 투수 앞 땅볼로 잡혔다. 하지만 3-1로 앞선 6회초 1사에서 투수 가르시아를 맞고 굴절된 유격수 내야안타를 쳐냈다.

김현수의 시범경기 타율은 0.255에서 0.259(5타수 14안타)로 상승했다. 좌투수 상대 타율은 0.375(8타수 3안타)가 됐다. 볼티모어는 5-4로 승리했다.

초청선수 신분으로 뛰는 황재균(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은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4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다.

/연합뉴스

## LPGA 시즌 첫 메이저…박인비, 마손과 한 조

내일 ANA 인스퍼레이션

‘골프 여제’ 박인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이션 1라운드에서 카롤리네 마손(독일)과 동반 플레이를 벌인다.

대회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1라운드 조편성 결과 박인비는 31일 오전 5시 9분 10분 홀에서 첫 티샷을 날린다. 메이저대회에서만 7승을 거둔 박인비는 2013년 이 대회 우승자다. 박인비와 함께 1라운드를 치르는 마손은 지난해 9월 매뉴라이프 클래식에서 우승했다.

올해 첫 메이저대회인 ANA 인스퍼레

이션은 30일부터 나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랜초 미라지의 미션힐스 컨트리클럽에서 열린다.

이번 시즌 LPGA 투어 상금 1위에 올라 있는 유소연은 스테이시 루이스(미국)와 ‘슈퍼 루키’ 박성현은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1라운드를 치른다. 지난해 우승자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브리트니 린시킵(미국)과 같은 조다. 전인지는 찰리 힐(잉글랜드), 김효주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과 동반 플레이를 하게 됐다. ‘천재 골프 소녀’ 중국계 루시 리(미국·15)는 ‘원조 천재 골프 소녀’인 제마동포 미셸 위와 한 조가 돼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KIA 타이거즈가 지난 28일 조명탑이 켜진 챔피언스필드에서 야간훈련을 하며 2017시즌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